차별 받은 식탁

32154887 생명과학과 하민기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세계의 식량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페이지를 넘기면서 드는 생각은 단지 잘못된 추측을 했구나 라는 것이다. 이 책은 사회 내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차별을 받던 시기에 살기 위해 먹었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흑인과 백인의 인종 차별과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인한 계급 차별 등이 다루어 지는 논픽션 형식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을 받고 생존을 위해 먹었던 음식들이 여러 종류로 나오면서 식문화를 통해 차별의 역사 혹은 현재 진행형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하지만 나는 음식보다도 그들이 억압당하는 상황을 중점으로 책을 읽어 내려 갔다. 소수 민족을 대변한 사담 후세인이 몰락한 후에 그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면서 우리가 언론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내용 중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설명한 것은 없지만 한국의 식문화는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리 차별 받지 않은 식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계급 간의 먹을 수 있는 건 다를지라도 말이다. 한국의 식문화는 다 같이 나눠 먹으며 그것은 조선시대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을 설렁탕의 유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임금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친히 논밭을 갈고 나서 미리 준비해 둔 가마솥에 쌀과 기장으로 밥을 하고, 소로 국을 끓여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불러 대접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평등한 식탁을 지향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차별 받은 식탁의 제목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았는데 결국은 편가르기와 이해관계에 눌린 공동체 사회의 붕괴로부터 기인 했으리라 보고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면 차별 받지 않은 온전한 식탁이 되겠지만 그 식탁조차 없어 굶주려 죽는 이들도 있고 겨우 연명하여 사는 이들도 있다. 선진국의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문화가 되었으며 그 기원조차 모른 채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제 3세계의 이들에게는 그것이 살기 위한 방편인 셈이다. 나는 이 책이 논픽션이라는 한계점을 설정한 것이 아쉽다. 좀 더 저자의 시각이 다각적이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더 심오하여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으면 어땠을까 싶다.